

김동연의 내 인생의 책 ③

협력의 진화 | 로버트 액셀로드



협력 · 신뢰로 쌓는 '사회적 자본'

'시험공부'가 아닌 '학문하는 즐거움'으로 공부한 때가 있었다. 꿀통에 빠진 벌처럼 파고들다 벽에 부딪히면 교수나 문헌을 통해 답을 찾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의사결정 참여자 간 힘의 차이가 있을 때의 문제였다. 합리성을 강조하거나 힘으로 상대를 지배한다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발적 협력'이란 행태에 대한 것이다. 실제 정책결정의 장(場)에서 많이 경험했던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운 좋게도 내가 공부했던 미시간대학에 천재 소리를 듣는 로버트 액셀로드라는 교수가 쓴 <협력의 진화>는 내 의문을 푸는데 힌트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에 있어 게임이론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그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기 위한 컴퓨터 대회를 열어 어떤 조건하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연속성이었다. 단발 게임에서는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속 게임에서는 협력해야 할 강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이 문제를 '사회적 자본'과 연결해 생각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믿은 뒤였다. 일상의 거래뿐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 정부정책까지도 한 번의 게임이 아니라 연속 게임으로 만들어야 협력과 신뢰가 생기고 결국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도킨스가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두 가두고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 추천사에 나는 한 표를 던진다.

행복한 결말이지만, 내가 가졌던 질문은 내 박사학위논문이 됐고 액셀로드는 내 논문 지도교수 중 한분이 되었다.

아주대총장 · 전국무조정실장

* 2015년 3월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기고문에서 전제한 내용이며, 마지막 문장은 누락돼 추가하였습니다.

김동연의 내 인생의 책 ⑤



강자의조건 | 이주희

다양성과 관용이 '부강의 길'

지난해 여름 공직에서 물러난 뒤 반년 가까이 지방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사의가 어렵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게 도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도 했다. 좋은 TV 다큐멘터리 '다시 보기도 그중 하나였다. EBS <강대국의 비밀>은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엮은 <강자의 조건>이 나오자마자 서점 서가에서 책을 뽑았다. 로마-몽골-영국-네덜란드-미국 등 다섯 나라의 사례를 통해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찾는 내용이다.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로마가 궁극적으로 이긴 원인은 무엇일까. 10만 병력에 불과했던 몽골이 광활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변방에 불과했던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쳐 세계 역사를 바꾸고,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큰 네덜란드가 17세기 경제적 초강대국이 된 것은 왜일까.

답은 '다양성'과 '관용'이었다. '다른 생각'을 허용하고 성공 경험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어제의 적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이다. 동일한 주제를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강대국들이 부강해지기 전 어려웠던 여건과 상황을 보면 오늘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관용'을 국가나 사회 차원에만 해당되는 얘기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강대국이 될 조건을 얼마나 갖췄는가'라는 역사의 준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진정한 강자가 되고 싶은 자, 칼이 아니라 손을 내밀진.

이주희총장·전국무주조정실장

* 2015년 3월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기고문에서 전재한 내용입니다.